

# 10월의 돈가 전망

10월 지육  
시세는  
2,600원/kg  
예상

어김없이 찾아온 양돈 불황의 계절에 올해는 얹친 데 덮친다는 속담처럼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될 예정이어서 양돈 농가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는 모두가 들뜨고 분위기 또한 좋아지게 마련인데 양돈 농가의 분위기는 짙은 먹구름 몰려오는 날씨처럼 어둡게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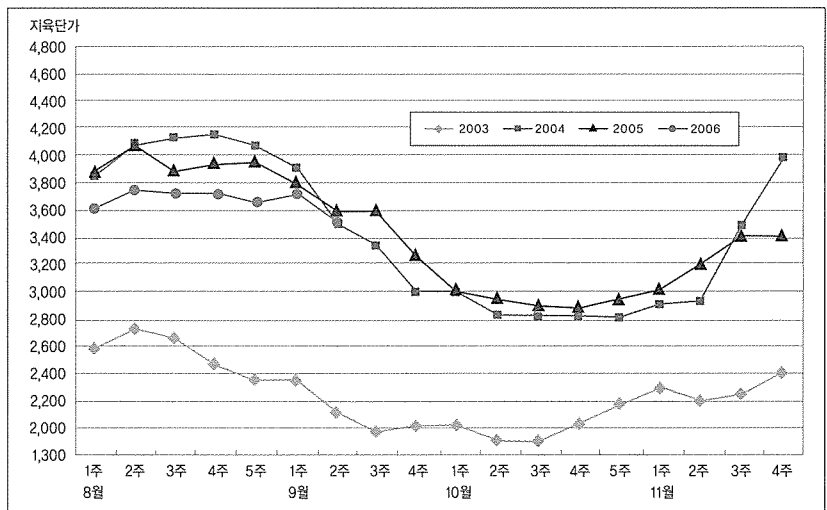
왜 매년 10월은 연중 최저 돈가를 보이며 돈가가 바닥을 치는 것일까? 그 이유는 10월은 출하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달이며 이와 반대로 돼지고기 소비는 가장 감소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지 출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어미 돼지들의 번식성적과 관련이 있다.

첫째, 매년 12월과 1월에 교배한 돼지는 번식성적이 양호하다. 이때 교배된 돼지의 분만은 3월과 4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이때는 봄철로 포유 자돈이 성장하기에 아주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나타내 육성율이 5~10% 상승하여 출생한 날로부터 6개월, 교배한 날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10월의 출하두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둘째, 여름철 고온 환경에 노출된 비육돈과 육성 자돈은 사료 섭취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성장이 지연되어 출하적정 체중이 110kg에 도달하는 일령이 늦어짐에 따라 출하 일령이 7~14일정도 지연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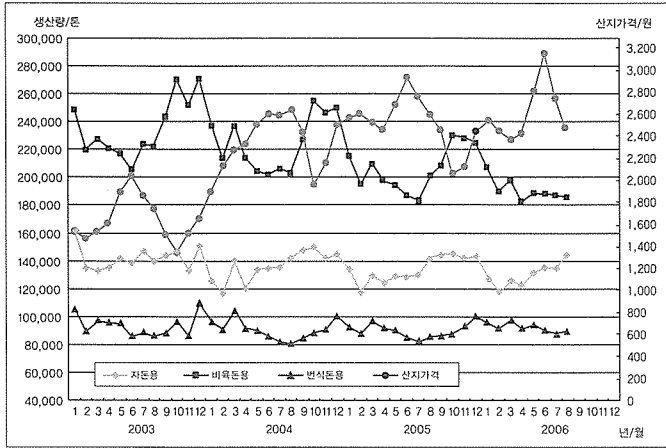
이렇게 지연된 일령의 돼지는 9월 중순 이후부터 돈사 온도가 사육 적온을 회복하면서 사료 섭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성장이 빨라지게 되어 어느 정도의 보상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상 성장한 돼지의 출하는 10월이 되면 더욱 늘어나게 된다.

<그래프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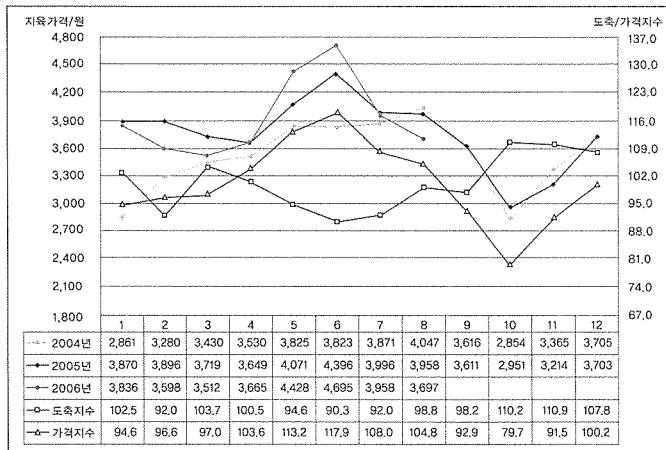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계열팀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등가 동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등가 동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식 성적과 가을철 보상 성장이 겹쳐지면서 10월 비육돈 출하지수는 110.2까지 늘어나게 된다(〈그래프 3〉 참조).

수요 측면에서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돼지고기 소비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추석 때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돼지고기는 돼지갈비이고 추석을 전후하여서는 선물 등 여러 분야에 돈 쓸 곳이 많아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추석 때 너무 많이 먹어서 늘어난 체중관리

등이 겹쳐지면 결국 추석 전후 2주간은 급격한 소비 하락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공급은 크게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게 됨에 따라 돼지가격은 폭락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금년도 10월에도 지속될 것인가?

대답은 '그렇다'이다.

우선 공급 물량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인 3개월 전 자돈 사료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4~5%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금년 7월의 비육돈 사료 생산량 또한 지난해보다 2%정도 증가된 수치를 나타내어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출하두수를 보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수입량 또한 상반기에는 전년보다 줄어 있지만 3/4분기 예상 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15%정도 증가한 38,500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여 돼지고기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돼지고기의 대체육으로 거래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예정이어서 공급 시장은 과잉이 예상된

다고 하겠다.

여기에 소비 시장은 경기 부진과 계절요인에 의해 소비 부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형 육가공 업체에서는 도축한 돼지의 70%정도를 냉동 저장하고 있을 정도로 돼지고기 소비시장이 위축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금년 10월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돼지 지육단가는 더욱 하락한 2,600원을 전후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